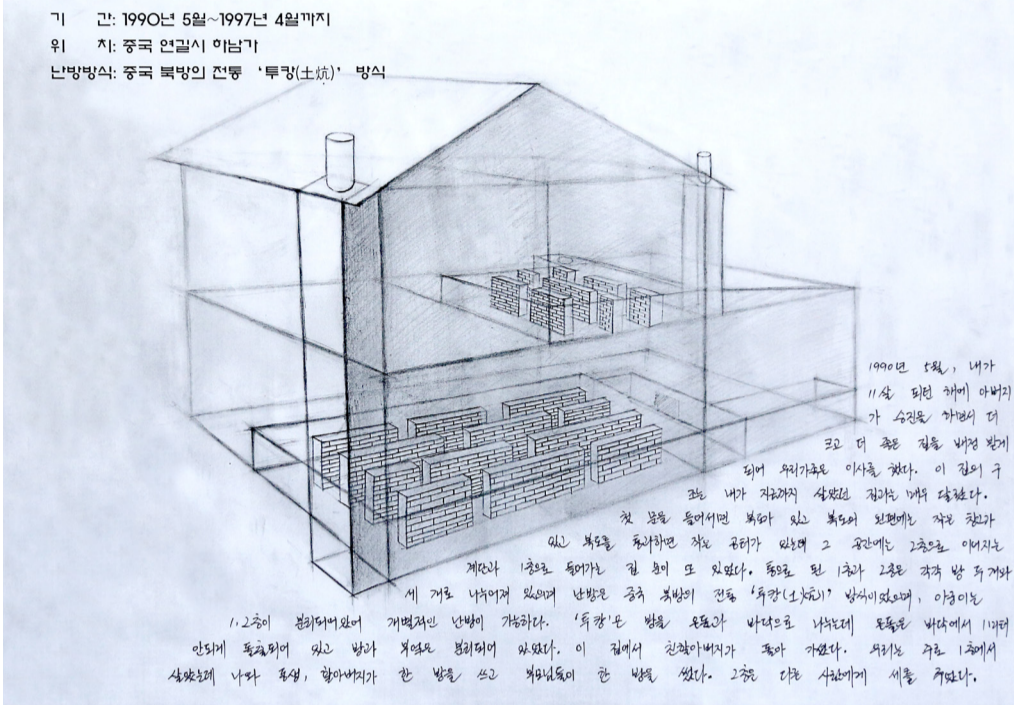


PREVIEW

신광 개인전 <이사와 이주>
Shen Guang solo exhibition <Move & Emigration>

전시기간 | 2015. 5. 29 금 - 2015. 6. 18 목
아티스트 토크 | 2015. 6. 16 화 18시 30분
퍼포먼스 | 전시 기간 중 매주 금~일 2-7pm



전시소개

신광 작가의 개인전 <이사와 이주 Move & Emigration>에서 작가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경험한 삶의 문화적 맥락을 소재로 한 작업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주과정에서의 경험에서 마주친 정체성의 변화와 연관한 다문화적 현상을 다루게 되는데, 거주문화, 게임, 물리적 지역 구분 등을 소재로 하여 상징적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인터뷰

Q. 작가는 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인 자신의 정체성을 주제로 작업을 해오셨는데, 작가에게 국적과 민족이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또 타지인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A. 중국에서 건너와 한국생활을 하면서 국가와 민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 국적은 마치 나의 소속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같은 것이라면, 민족은 제게 주어진 것으로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적은 제가 원하면 바꿀 수 있어도 민족은 그럴 수 없지요. 제가 한국에 대한 인상은 이곳에서 생활한 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언제나 추상적인 존재였습니다. 중국 내 많은 조선족들이 느끼듯이 말이지요.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의 일상이 되었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저의 작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저의 작업은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작가는 중국과 한국에서 모두 이방인으로 취급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그리고 작가에게 어느 사회에 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A. 제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는 국적이 아닌 문화 종족적인 범위에서 한국과 중국 어느 곳에서도 주체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 보다는 한 개인으로서 인식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한 개인을 인식하기보다는 어떤 집단이나 종족에 국한시켜 그 개인을 인식합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사회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Q. <이사와 이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가는 중국과 한국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주공간에서 생활하며 본인이 겪은 서로 다른 난방형태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작업의 주제와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A. 난방방식의 변화는 환경과 시대적 상황 등 여러 요소들과 연관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제가 연변에서 살았던 아파트는 라디에이터 난방방식에서 한국형 스팀 온돌 난방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 연변에는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한국문화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거지요. 이런 난방 방식의 변화에는 제가 살았던 지역이 조선족자치주라는 것 또한 중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문화의 뒤섞임은 조선족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이 그 전 시기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바뀌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난방방식도 그중의 하나겠지요.

Q. <보이지 않는 경계>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존재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에 관한 작업입니다. 작업에서 외국인 거주 지역에 대한 경계가 상징하는 것이 있나요? 혹시 한국에서 생활하며 외국인으로서 겪게 되는 차별이나 편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닌가요?

A. 우선 이 작업은 차이나 편견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경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회문화적인 경계에 대한 인정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집거구역의 문화는 한국 사회와는 거리가 있는, 그들(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만의 것으로 인식되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거구 문화는 한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 거주국의 문화와도 별개로 보아야 합니다. 즉 이 문화는 한국사회가 만들어낸 또 다른 로컬 문화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제 2회 신진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Curator Incubating Program

전시 기획 | 김미소, 손주영
참여 작가 | 게이곤조, 노상호, 엄귀현, 현남, 권혜성, 노충현, 엄유정

전시기간 | 2015. 7. 7 화 - 2015. 7. 26 일
오프닝 리셉션 | 2015. 7. 7 화 18시
기획자 대담 | 2015. 7. 22 수 16시



<눈물이 뭉개뭉개>, 싱글채널 영상, 6분 52초, 2012, 엄귀현

전시소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은 지난해 부터 젊은 기획자들의 실무 능력을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연례 프로젝트로서 <신진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입산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교수의 도움과 함께 처음 만나는 두 명의 신진 기획자 손주영, 김미소의 협업을 통한 전시가 기획, 진행되었다.

인터뷰

Q.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기획자 두 명이 하나의 전시를 만들어 내기 위한 담론 형성 과정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A. (김미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항상 재미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주영씨와의 만남은 재미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과 많이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두 사람의 전시 주제가 날씨인 것이 우연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도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날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서로 잘 모르는 두 기획자가 만났기에 더 많은 사람이 공감 할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중입니다.

A. (손주영) 같은 시간 같은 곳에 있다고 해서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둘은 아주 다른 세상에서 산다고 느낄 만큼 다른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시 주제를 위한 스터디 기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공유하는 이야기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경험을 출발점으로 삼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달랐다면 전시의 주제, 방법, 참여 작가 등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핸드캡이 뭔가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짧은 시간동안 전시 기획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작가 섭외 과정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효율적인 방법이 있었나요?

A. (김미소) 기간이 짧은 만큼 새로운 작가를 찾는 기간은 길지 않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작가들을 리마인드하고 그들의 작업을 다시 살펴보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손주영씨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현재 작업 중이고, 함께 전시를 할 수 있는 작가들을 많이 알고 계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A. (손주영) 전시의 키워드를 '장마'로 정한 때가 전시 오픈 예정일 두 달 남짓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전시에 적합한 기존 작업이 있는 작가를 찾아보고 먼저 섭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 알거나 관심 두던 작가 중에 '장마'라는 소재를 흥미로워할 분들에게 신작을 의뢰했습니다.

Q. 인간의 감정, 생각, 행동 등에 영향을 주는 여러 날씨 중 '장마'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김미소) 제가 장마가 재미있는 주제라고 생각한 이유는 장마가 다른 날씨들과는 다르게 여러가지 속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장마를 이루는 대기현상인 '비'는 낭만을 떠올리게 하지만 '비'라는 현상이 계속되는 장마는 낭만이고 시원함일 뿐만 아니라 불쾌하고 불편하고 누군가에게는 재난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상반되는 속성을 가진다는 것이 장마를 전시 주제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또한 짧게 지나가는 대기현상은 사람의 감정, 생각, 행동을 지배하지만, 길게 이어지는 대기현상은 사람이 그것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컨트롤 할 수 있다는 점도 장마를 주제로 선택하게 된 다른 이유입니다.

A. (손주영) 전시 주제로 '장마'를 떠올린 이유는 단순히 전시 기간이 장마철이었기 때문입니다. 전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기후 현상에 관한 전시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장마는 단순한 비와 다릅니다. 장마철은 거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긴 시간 동안 비가 옵니다. 그러므로 장마는 시간을 포함한 개념이고, 장맛비는 물리적인 공간이 됩니다. 날씨가 인간의 감정, 생각, 행동 등에 영향을 준다면, 장마는 그것을 극으로 내모는 시간이자 공간입니다.

| REVIEW with PHOTOS |

이정형 개인전 <파인 워크>

Chunghyung Lee solo exhibition <Fine Works>

2015. 4. 30 목 - 5. 21 목



1 | 오프닝 리셉션, 4월 30일 2 | 아티스트 토크, 5월 16일 3 | 전시장 전경

작가는 전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를 해왔다. 새로운 공간 뒤에 배출되는 것들은 마치 병아리가 달걀을 깨고 나온 후의 달걀 껍데기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달걀 껍데기들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었다. 깨진 벽돌 위에 다시 그려진 벽돌이, 미술관에서 흰 페인팅으로 커커이 두꺼워진 벽면의 변신이 반갑다. 노동 끝에 생산된 예술은 병아리 뿐 만이 아니었다. 일본속담 중에 “卵を割らなければ” オムレツは作れない.” 가 있다. 달걀을 깨지 못하면 오믈렛을 만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인데, 이정형 작가는 나아가 오믈렛을 만들고 난 후 남겨진 달걀 껍데기로 또 다른 음식을 만들었다. 그것은 분명 이정형 작가만의 요리비법이며, 먹을 수 있도록 조리할 수 있는 작가의 내공이다. 나는 웬지 전시장 전장을 향해 솟아오른 형태의 작품들이 좋다. <위대한 손가락>, <천국으로 가는 길>, <페인터>의 세워진 페인트 붓 자루들처럼, 이렇게 위로 치솟은 형태들은 성공을 향한 위트있는 가리킴인가! (글, 한황수 코디네이터)

경현수 개인전 <형태와 색채>

Hyunsoo Kyung solo exhibition <Shape & Color>

2015. 4. 4 토 - 2015. 4. 24 금



1 | 오프닝 리셉션, 4월 4일
2 | 전시장 전경, 윌링앤딜링
3 | 아티스트 토크, 4월 18일

그 날 경현수 작가는 다섯 시간 여에 걸쳐 본인의 전시장을 사진에 담았다. 나는 그가 다소 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가 삼일째 전시장 사진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그의 어시스턴트로 일하는 것을 포기했다. 오랜 사진 촬영 후, 그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내일 다시 와서 마저 사진을 찍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전시 철수를 며칠 앞둔 어느 날, 작가는 갤러리의 테이블 위에 앉아 윌링앤딜링에 남길 선물을 만들고 있었다. 접착제를 이용해 플라스틱 조각들을 이어붙이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생각처럼 서로 잘 붙지 않는 듯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특히 마지막 한 조각이 자꾸 떨어져 나가 한동안 애를 먹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접착제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그 조각을 붙이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작가는 그 조각에 다시 접착제를 발라 붙였고,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장부를 정리했다. 한 시간 즈음 지나 화장실에 가는 길에 (그때까지도!) 시간이 정지한 듯 그 조각을 붙잡고서 접착제가 마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경현수 작가를 보았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선물)의 자리는 몇 차례 옮겨진 뒤 지금은 윌링앤딜링 주방 입구에 매달려있다. (글, 박윤삼 코디네이터)

| EPILOGUE |

윌링앤딜링과 오글오글 감상평 by 황수

김인선의 <악마의 간식>

경고) 본 레시피는 영양 및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절대 옳지 않음

재료 : 라면사리면, 김치, 버터, 베이컨, 설탕

1. 김치를 총총 썰어서 버터에 볶으며 설탕을 적당량(?) 넣는다
2. 베이컨을 적당량(?) 크기로 썰어서 함께 볶는다.
3. 그동안 삶은 면을 넣어서 함께 적당히(!?) 볶는다.

★★★★ 동·서양 달콤함의 조화는 마치 저를 랑카위의 99개 섬으로 데려다 주더군요, 저는 그곳에서 돌고래와 춤을 춰요,

리신애의 <바리에서 온 봉쥬르 사라다>

재료 : 당근, 고지베리, 견과류, 레몬즙, 발사믹소스, 머스터드, 꿀, 소금

1. 레몬즙, 발사믹소스, 머스터드, 꿀, 소금을 0:0:0:0 비율로 섞어 소스를 만든다.
2. 채썬 당근, 고지베리, 원하는 견과류(아몬드, 캐슈넛, 호두등등...)를 한데 넣는다.
3. 재료들과 만들어 둔 소스를 잘 섞어줍니다.

★★★★ 당근의 비타민 A, 카로틴은 제 시력을 보호하는 데 안성맞춤이었어요, 하지만 연약한 제 치아들은 저 딱딱한 재료들을 못 버티더군요,

박윤삼의 <담백한 떡볶이>

재료 : 떡볶이 떡, 오뎅, 고추장, 고춧가루, 소고기, 멸치, 양파 한개, 배 한개

1. 물 500ml에 소고기와 멸치로 육수를 우려낸 뒤, 멸치만 걸러낸다.
2. 양파는 잘게 썰어놓고, 배는 믹서기에 갈아 쥬스처럼 만들어 놓는다.
3. 떡과 오뎅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놓는다.
4. 끓는 육수에 떡과 오뎅,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각각 크게 두 스푼, 위에서 준비한 양파와 배를 모두 넣고 끓인다. 국물이 졸 때까지 끓인다.

★★★★☆ 여제의 술자리로 고생하는 애인에게 선물하는 떡볶이! 배즙으로 숙취해소 걱정 끝! 풍부한 섬유질로 변비까지 탈출 시키자구요!

이옥진의 <짜달짜달의 결정체>

재료 : 바닐라맛 아이스크림, 짭짤한 나초

1. 나초 위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한 스푼 얹는다.
2. 한입에 먹는다. 응?

★★★★☆ 얇은 자리에서 영화 세 편을 푹딱 헤치웠어요, 조심하세요, 저처럼 실패버리날라! (;)

| SHORT-CUT NEWS | 윌링앤딜링 전시 참여 작가들의 행방



심아빈, 박선민 작가는 2015. 1월 ~4월 생태예술프로젝트 워크숍을 가졌고, 4월 27일 아르코미술관 필룩스홀에서 쇼케이스를 가졌습니다.

심아빈 작가는 남서울 예술인 마을의 5. 18 오픈스튜디오에 참여하였습니다.

추미림 작가가 6월 하순경 공주님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순산을 기원합니다.

김수영 작가는 금호미술관의 <열은 공기 속으로_into thin air>전에 참여합니다. 전시기간은 5. 28 ~ 8. 20 까지.

이수경 작가는 MOCA Taipei (Museum of Contemporary Art, Taipei) 2015 에서 개인전 <When I Become you>을 가집니다. 전시기간은 6. 9 ~ 8. 2 까지.

이신애 작가는 홍보라 기획자의 기획으로 헬싱키 디자인 미술관에서 열리는 <Wirkkala Revisited>에 참여합니다. 전시는 6월 5일부터 약 두달간.

오시는길



주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777-20번지 2층



QR코드를 확인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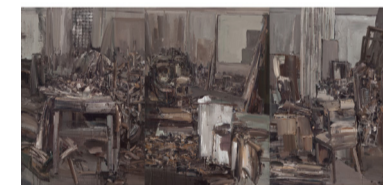
SPACE:
WILLING
N
DEALING

후 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 찬: 애플루트 보드카
발 행: 스페이스 윌링앤딜링
편집인: 박윤삼, 한황수, 이옥진
감 수: 김인선
발행일: 2015년 5월 29일



윤병주 작가는 토탈미술관에서 열리는 단체전 <거지말의 거지말: 사진에 관하여>에 참여하였습니다. 전시기간은 4. 23 ~ 6. 21 까지.

han sung woo the scenery behind



한성우 작가의 개인전 <풍경의 뒷모습 The scenery behind>이 5. 20 ~ 6. 20 까지 spacebm에서 열립니다.

| W&D NEWS |

박은주 공동대표는 5월 11일 오후 3시 12분 외손자를 득남하였다. 태어난 아기는 신생아 담지 않은 수려한 외모로 밝은 미래가 촉망되고 있다.

김인선 대표는 4월 말 어깨에 닿을 듯한 길이로 머리를 자른 후 주위의 반응이 좋다고 판단, 이에 자신감을 얻고 열흘 만에 다시 미용실을 찾아 과감히 귀 밑까지 오는 짧은 단발머리를 하였다. 4년 만에 짧아진 헤어스타일에 한 지인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가 그녀를 만난 기분”이라며 소감을 전했으며, 주위의 뜨거운 반응에 김인선 대표는 리즈 시절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을 만끽하고 있다.

한황수 코디네이터는 4월과 5월 두달 동안 아무런 사건 없이 지나간 것에 대하여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올해 4월 어느 날 코디네이터 박윤삼의 최고 애장 피규어 <초합금혼 GX-44s 철인 28호&블랙옥스>에 스크래치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규어 컬렉션 정리 중 직접 이러한 사고를 낸 당사자인 박씨는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뻔 하였으나 곧 새것으로 교체,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옥진 인턴이 단 한 번도 공포영화를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한 것에 대해 지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윌링앤딜링의 비정기 행사 <영화의 밤>이 취소된 상황과 관련, 이씨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태가 걸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씨는 “이제는 웬지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입장 표명을 하였으나, 여전히 여론은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한 정치적 발언일 뿐이라며 싸늘한 반응이다.